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14강, Old/New Paul과 서문. 로마서에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친구 바울에 대한 강의 14, 로마서
입문입니다.

좋아, 계속해서 가자.

오늘 나는 사도행전에서 벗어나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적어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과 인물이 결국 서신의 저자가 된다는 점에서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개로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 그러므로 사도행전 직후에 그의 서신 모음집을 발견하고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로 다시 시작하는 그 글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기록된 순서대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따를 것입니다.

그럼 먼저 로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구약과 신약의 형태로 당신 자신을 은혜롭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바로 그 계시를 분석하고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은혜로운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정신력과 모든 도구를 동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사도 바울과 이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신약성경 시험을 본 바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서신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고 대체로

길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 중 가장 길기 때문이다.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로 보내질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인데, 그 이유는 이번 학기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편지 자체와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으로도 그의 편지 쓰기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생각할 때 신약 학자들이 바울 서신의 간헐적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끔 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편지의 간헐적 성격은 바울의 편지가 다소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바울이 방문한 모든 장소와 그가 세운 모든 교회에 대해 읽습니다. 바울이 자리에 앉아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교회들에서 발생한 특정 문제와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반영하는 신학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바울의 사고와 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를 다루는 매우 상황적으로 구체적인 일련의 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의 편지의 간헐적인 성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상황, 상황,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독창적이지 않은 두 가지 일반적인 비유가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바울의 서신이나 바울의 생각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는 전화 통화와 메일 읽기, 누군가의 우편함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메일 읽기, 또는 자신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폴의 편지를 읽는 것은 그 점에서는 전화 대화의 한쪽 끝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을 때 가끔 아내와 이런 일을 자주 한다는 점에서 전화 대화의 한쪽 끝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내 딸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는 방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대화의 한쪽 끝만 들으면 반대편 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일을 토대로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실제로 듣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도 그와 비슷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당신은 전화 대화의 한쪽 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뿐입니다.

전화선 반대편 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편지 자체를 읽는 것에 기초하여 바울이 무엇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추론하고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나요? 그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메일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귀하가 의도하지 않은 편지를 받고 읽었다면 대화의 나머지 부분이나 상대방이 쓴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 그래서 당신은 편지 자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편지, 즉 그의 의사소통에 대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

또는 바울이 편지를 쓴 다른 도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가능한 한 많이 재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이나 상황,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에 대응하여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바울의 편지에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원입입니다. 우리는 독자와 그들의 상황,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바울의 편지를 살펴본 다음, 그것을 사용하여 편지 자체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바울 서신 중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끝날 것입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상황과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믿게 된 것과 매우 다르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몇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글자를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일부 편지에는 바울이 모든 사람이 특정 상황에 관여할 것이라고 반드시 가정하지는 않는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 두 사람, 특히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편지를 다른 사람, 즉 라오디게아 도시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 중 일부에는 그 편지가 의도한 바로 그 청중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읽어야 한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훨씬 더 상황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편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상황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특정한 교회에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읽혀지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미, 흥미롭게도, 이미 1세기 말에 우리가 정경에 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후서의 본문을 봤던 것을 기억하세요. 저자인 베드로후서는 바울의 서신 모음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편지. 따라서 적어도 1세기 말에는 이미 바울의 편지 모음집이 꽤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확실하지 않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들이 언급된 구체적인 상황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골로새서와 같이 그의 편지가 단순한 것보다 더 널리 배포되도록 의도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로. 그런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아주 아주 간략하게 그 사람, 즉 폴 자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말은, 초기 기독교의 이 인물이나 인물은 누구이며, 그의 이름을 지닌 이 모든 편지들이 신약성서에 포함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의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 면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그의 유대 세계였다. 바울은 독실한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비록 그가 때때로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바리새파 학교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생활 방식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우익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서신에서 교회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종교에 너무나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열심당하는 성향을 지닌 바리새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신다면, 바울은 열심당 성향이 강한 일종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로운 믿음이 그의 조상 종교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 훈련을 받은 유대인이었고, 분명히 그것은 그의

글에서 구약성경을 차용한 정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아마도 그리스-로마 훈련과 양육에 대해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숙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당시의 공용 언어인 그리스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꺼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의 로마 시민권 덕분에 몇 번이나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 세계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유대교와 엄격한 율법의 세계에서 자란 열심당원형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자 로마 세계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읽은 사건, 즉 바울의 회심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외에 바울 자신도 자신의 회심을 다른 한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두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 곳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장하여 율법을 세심하게 순종하고 지키도록 자랐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좌절감과 능력이 부족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법에 순종하자 그는 양심에 더 괴로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를 자극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침내 그는 굴복했고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그는 더욱 좌절감을 느꼈고, 법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욱 환멸을 느꼈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를 몰아붙이고 밀어붙여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매우 대중적인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약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유대교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한 두 가지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전통적인 견해는 바울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만족감이 줄어들고 죄책감과 좌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세주. 하지만 이 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중 하나를 발견하고 빌립보서 3장에서 다른 하나는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적 기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초기 유대교 생활에 대해 당신이 의심의 여지 없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 이전의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나의 초기 유대교 생활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믿었으니 이는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심이 있었음이라. 그러나 이어서 말하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것이 계좌번호 1번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전생을 자서전적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글을 쓰고 있지만 유대교에서의 이전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곧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바울은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서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히브리인에게서 난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율법 아래의 의에 관해서는 나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자신의 능력에 좌절한 사람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죄책감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내성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사람, 점점 더 좌절하고 점점 더 자각하는 사람처럼 들리나요? 그가 무능력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나에게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에 있어서는 내가 흠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대교에 대해 너무나 확신이 있어서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실패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침내 복음에 몸을 던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의 삶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바울을 변화시킨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존재에 개입하셔서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쓰러뜨리셨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생활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능력과 유대교 생활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건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은 이것이 바울의 회심이자 위임 또는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갈라디아서의 나머지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읽은 부분은 그의 유대교에서의 삶을 묘사한 후이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으므로 그는 메시아 예수를 배제한 하나의 종교 체계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종교 체계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회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커미셔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끝나는 모든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삭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편지와 제가 하려는 것은 우편 비유를 선택하고 편지를 소개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낸 편지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어보고 싶은 초대교회 우편물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독자나 저자에 대한 표시가 없는 복음서와는 달리, 바울의 서신은 전형적인 1세기 편지와 마찬가지로 저자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독자에 대한 표시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저자와 독자에 대해 꽤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열어볼 첫 번째 편지입니다.

출발점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당신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당신이 로마서를 읽는 것은 당신보다 먼저 그것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독일인입니다. 마틴 루터, 우리는 루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여러분은 그를 '강대한 요새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찬송가의 저자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인생에서 로마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촉매제였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한 루터의 생각이 형성된 곳은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루터의 회심과 복음이 무엇인지, 즉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알려진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로마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약 5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칼 바르트. 매우 좋은.

내 생각에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기독교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이자 가장 뛰어난 신학 사상가 중 한 명이다. 로마서는 또한 칼 바르트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 독일의 자유주의에 맞서고 로마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신의 종교개혁이 거의 촉발될 뻔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핵심적인 두 인물이지만 그들의 정신과 사고, 신학 체계와 그에 따른 종교 개혁 유형의 운동은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뛰어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들의 어깨 위에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글썄, 그것은 오히려 분명하다. 바울 서신 모음집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첫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6장의 편지 맨 뒷부분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바울의 많은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안부, 즉 어떤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편지를 끝냅니다.

그리고 22절, 16장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풀이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1세기에 편지를 쓰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즉, amanuensis라고 불리는 서비스, 기본적으로는 비서라는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이 매우 인기 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정도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편지를 지시하면 그들은 당신의 편지를 적어줄 것입니다.

종종 편지의 저자 자신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후에 Paul이 그것을 읽고 '예,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세요'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편지를 작성하는 매우 일반적인 1세기 방법, 즉 비서나 서기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디오(Tertius)는 실제로 로마서를 기록한 그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에 쓰고 싶은 것을 받아쓰거나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거의 모든 편지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1세기에 쓴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는가? 로마서는 때로는 특정 문제나 위기를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기본적으로 바울 복음의 요약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처럼 매우 구체적인 위기나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그 편지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Gordon College의 신약성서 조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첫 번째는 선교, 선교적 목적이다.

즉, 바울은 로마를 추가적인 선교 활동의 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즉, 로마서에서 바울의 궁극적인 계획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서쪽으로, 가능한 한 멀리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교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로마를 이용하거나 로마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우리가 편지의 끝부분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로마 교회인 여러분에게 가는 것을 자주 방해했다고 말씀하십시오. 로마서 15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없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Paul의 최종 목표는 스페인에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여행에서 당신을 만나고 잠시 동안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당신에게 보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에게 자원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였노라.

그들은 이 일을 기뻐했고 실제로 그들에게 빛진 자들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게 되었으면 그들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모아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떠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총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임을 압니다.

그럼, 사진이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스페인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며 로마 교회가 그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를 지원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쓴 이유 중 하나는 선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로마의 지원을 얻고 로마를 자신의 활동 기지로 확보하여 스페인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사과입니다.

응, 모금 편지요. 예,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신체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하나가 그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 지원뿐 아니라 그가 스페인으로 출발할 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네, 전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가 자신을 지지해 준 다른 장소를 언급한 것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변증적 목적, 일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분별한 또 다른 목적은 변증적 목적입니다. 변증한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증이란 그가 설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첫 번째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 중 하나를 로마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증하는 사람이 자신이 선포할 복음과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변호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목적입니다.

즉, 특히 로마서 14장에 이르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로마서 14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바로 이 문제에 관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근거로 서로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일부는 목회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회중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 로마서가 쓰여졌다면 아마도 서기 57년쯤이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서기 5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약 8년 전인 서기 49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당신 노트의 맨 마지막 장에는 2세기부터 모든 황제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49년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칙령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유대인을 로마 시에서 추방하라는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서기 54년에 그가 죽었을 때, 그 칙령은 폐지되었고 유대인들은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은 대략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방인의 현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점점 더 이방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다루어야 할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 가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몇 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모두 로마서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 가지 목적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말은,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가끔 편지를 쓸 때, 쓰는 이유가 항상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바울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바울이 앞서서 로마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관찰은.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내용은 바울의 다른 책들, 특히 갈라디아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 번 이를 분명히 밝혔고, 나는 여러분에게 핵심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장에서 중요한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3장 21절과 3장 22절에서 그는 이제 율법과는 별개로, 율법으로는 단지 어떤 율법이나 로마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외에, 모세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므로 그가 의를 어떻게 대조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몇 구절 뒤에 있는 3장 28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그 말을 통해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바울은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까?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왜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 사이의 이 대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도록 어떻게 성장하고 배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처음으로 씨름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사람이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대조가 문제라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존하는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공로를 얻기에 충분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선택은 선행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당신의 구원과 칭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당화 또는 정당화라는 단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율법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오직 그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로마서를 그렇게 읽은 적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틴 루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의 로마서 읽기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로마서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이 정당화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의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는 실제로 20세기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EP 샌더스(EP Sanders)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성 샌더스뿐입니다.

EP 샌더스. 자, 이것은 다시 수백년 후에 샌더스가 등장하여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읽는 방식에 도전했습니다. 분명히 마틴 루터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방식에 도전하며, 루터가 바울을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상황을 바울에게 다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루터는 자신의 교회를 둘러보면서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변해 면죄부 이런저런 것을 사는 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과 자신의 무능력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할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루터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약성서와 유대교 문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미슈나와 같은 유대교 문헌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탈무드 등 몇몇 문학 작품도 언급했습니다. 글썄요, 그는 문헌을 읽을 때 1세기의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샌더스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거기에 있게 한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격언 주의(Gnomism)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즉, 격언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율법의 행위이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계속할 것입니다. 다시 그는 그 노움주의(gnomism) 라고 불렀습니다.

음, 언약적 격언 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놈주의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율법주의와 더 좋은 유사점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놈주의는 율법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율법과 관련하여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문제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결정하는 데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샌더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규칙과 규정의 목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샌더스였습니다.

이제 퍼즐의 한 조각이 더 남았습니다. 영국 학자 James Dunn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냉철하고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샌더스의 말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샌더스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율법은 단지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화를 냈습니까? 글썄요, 던의 대답은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격언주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민족주의라고 말했다. 즉, 문제는 율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유대인들이 구원의 약속을 유대인이라는 것에 너무 밀접하게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하여, 율법을 하나의 요소로 삼아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요 정체성 표시를 놓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중요한 특징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민족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 및 유대인이라는 것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제거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열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이지 루터가 생각한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등 뒤에는 거의 스누크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옳아.

아마도 로마 교회는 둘 다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히 비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시점에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로마에 줄곧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디아스포라(diaspora) 또는 분산(dispers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대부분의 도시에는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와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읽었다고 말합니다. 로마를 포함한 이들 도시의 대부분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인 교회에 연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Dunn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자신의 정체성 표시로 고수하기를 원하고 이방인들도 이를 따르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종종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모습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또는 마틴 루터 시대 이후로 바울의 종류는 극단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선한 일들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문제는 매우 다른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제한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관점, 특히 Luther와 Sanders-Dunn, 새로운 모습, Sanders와 Dunn은 일종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사실 내 생각에 Dunn은 Paul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모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를 보는 또 다른 방식은 문제입니다. 기존 접근 방식에 따르면 저는 기본적으로 Luther를 제안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은 Sanders와 Dunn입니다. 옛 접근 방식에 따르면,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죄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루터에 따르면, 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필요한 만큼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죄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 따르면, 주된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나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의 배타주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모세의 율법, 즉 유대인이라는 것에 너무 협소하게 묶어 이방인들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제외합니다. 이를 비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둘 다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루터에 따르면 바울이 다루고 있는 질문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나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초점은 수직입니다.

반면 Dunne과 Sanders의 새로운 관점에서는 그것이 Paul이 대답하는 주요 질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었느냐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들은 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점이 다릅니다. 루터에 따르면, 초점은 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반면에 새로운 관점은 더욱 공동체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한 백성에 포함될 것인가? Dunne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James Dunne은 주로 그가 신원 배지 또는 표시라고 부르는 측면에서 법을 보았습니다. 즉, 율법은 특히 남자의 할례, 특히 안식일과 음식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준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방인과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구원이 이러한 정체성 표시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단지 유대 민족에 속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지, 할례, 음식법 등과 같은 신분 배지를 식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제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렇다면 두 접근 방식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매우 개인주의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별개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관점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지 궁금하시겠죠? 가능한 해결책은 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New Perspective가 될 것이고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유대인-이방인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배타주의가 문제다. 이방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표시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New Perspective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모든 마지막 유대인을 냉정하고 강경한 율법주의자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Paul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New Perspective가 아마도 올바른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인가?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로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인들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구원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요구됩니까? 이방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떻게 서는가?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도 루터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로마서를 읽는 적절한 반응과 적절한 방법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 두 가지 접근 방식과 두 가지 관점이 다뤄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고 그 관점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좋습니다. 로마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구절이 몇 군데 있지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친구 바울에 대한 강의 14, 로마서 입문입니다.